

<하기 글은 2018년 1월 15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난 1월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올해 첫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첫 만남인 만큼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훈훈한 새해 덕담으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반갑게 맞았는데, 그 현장을 소개 합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아침, 미소 띤 얼굴로 회의실에 모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무술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1월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접수된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 인근 흡연과 무단 주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협력사직원 금연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차량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송, 주차장 출입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에서 2017년 하반기에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2월, 용인 문예회관 리모델링 재개관에 맞추어 1층에 'Cafe 休(카페 휴)' 14호점이 오픈했는데, 오광환 지역 위원대표는 새롭게 문을 연 14호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면, 채용시 많은 분들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 진행될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1/16 ~ 1/26까지 총 6차수에 걸쳐 진행될 2018년 겨울방학 환경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응원과 함께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1월 정기회의는 소통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오광환 지역 위원대표와 이신원 위원을 만나 1월 정기회의를 마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오광환 지역 위원대표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오늘 2018년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새해 첫 회의부터 위원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셔서 많은 의견을 나누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새해를 맞아 덕담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소통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신원 위원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기업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통협의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생겨 기쁘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1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삼성전자와 소통협의회를 위해 2018년에도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